

아메리카적인, 너무나 아메리카적인

짐 자무쉬 감독의 <고스트 독>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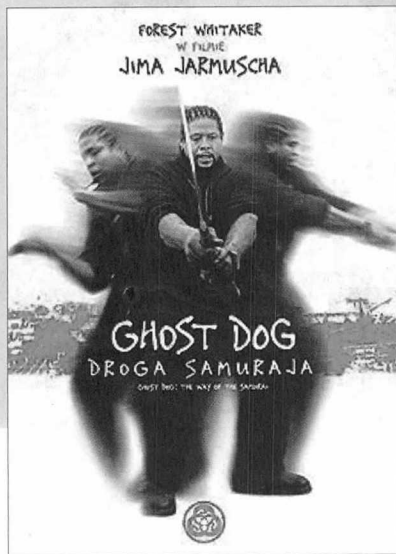
김경욱 | 소설가

귀신처럼 해치우고 개처럼 충성한다는 뜻의 '고스트 독'이라는 별명이 붙은 주인공. 그는 마피아 두목의 딸과 눈이 맞은 부하를 죽이는 살인청부를 수행하던 중 뜻하지 않은 상황에 마주친다. 살인현장에 그 어떤 목격자도 남겨놓지 않는 주인공이었지만, <라쇼몽>을 읽는 소녀를 죽일 수는 없었다. 만일 혼합된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미국문화라면, 짐 자무쉬가 창조한 이 캐릭터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인물인 셈이다.

짐 자무쉬의 영화는 낯설다. 독일 출신의 거장 빔 벤더스의 영화제작에 참여하다 그 여분의 필름을 빌려 찍은, 1984년 칸느 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하게 한 기묘한 흑백영화 <친국보다 낯선>이 그랬고, <사무라이의 길>을 읽는 뉴욕의 뒷골목 킬러의 이야기를 다룬 최근작 <고스트 독>이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짐 자무쉬 영화의 낯설음은 그것이 지나치게 미국적이기 때문이다.

랩송을 들으며 <사무라이의 길>을 읽는 킬러 랩송을 귀에 달고 다니며 일본의 고서(古書)인 <사무라이의 길>을 바이블처럼 외고 다니는 뉴욕 뒷골목 마피아의 흑인 살인 청부업자. <고스트 독>에서 짐 자무쉬가 창조한 이 캐릭터는 짐 자무쉬 영화의 아메리카니즘을 회화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만일 혼합된 문화 속에서의 정체성 찾기, 혹은 소통을 현대 미국문화의 화두라고 전제할 수 있다면 짐 자무쉬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마피아 줄개인 '루이'에게 목숨을 구하는 신세를 지게된 주인공. 그 후 주인공은 마피아의 청부를 받는 킬러가 되고 그에게는 귀신처럼 해치우고 개처럼 충성한다는 의미의 '고스트 독'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닌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마피아 두목의 딸과 눈이 맞은 부하를 죽이라는 살인청부를 수행하던 중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 중의 하나인 <라쇼몽>은 공교롭게도 살인현장에 등장해 소통이 철저하게 단절된 인간들 사이를 부유한다. 청부살인의 현장에서 마피아 두목의 딸로부터 '고스트 독'에게로.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는 '루이'에게 죽임을 당하는 '고스트 독'의 손에서 '루이'에게로. 그리고 '루이'에게서 마피아 두목의 딸에게로. 결국 <라쇼몽>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마피아 두목의 딸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살인현장에는 그 어떤 목격자도 남겨 놓지 않는 '고스트 독'이지만 <라쇼몽>(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을 읽는 소녀를 죽일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라쇼몽>이 마피아 두목의 딸을 살린 것이다. 이렇듯,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살인청부업자 '고스트 독'의 정체가 드러나자 마피아 두목은 그를 제 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라쇼몽>. 하나의 살인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의 엇갈린 진술을 통해 보편적인 진실의 가능성

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이 일본의 근대 소설은 서양인들의 구미에 딱 들어맞는 작품이다. 할리우드의 가장 대중적인 감독들조차도 그들의 영화적 스승으로 상찬해 마지않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영화화해 벽안(碧眼)의 영화제 심사위원들을 매료시킨 바 있기도 한 이 소설은, 결국 다양성과 혼돈 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려는 서구철학의 핵을 건드리는 작품이다. 일본색이 강한 오즈 야스지로보다 구로자와 아키라가 미국이나 유럽의 영화계에서 더 높이 평가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리엔탈리즘의 영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이런 사실들은 <고스트 독>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통이 단절된 인간들 사이를 부유하는 책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 중의 하나인 <라쇼몽>은 공교롭게도 살인현장에 등장해 소통이 철저하게 단절된 인간들 사이를 부유한다. 청부살인의 현장에서 마피아 두목의 딸로부터 '고스트 독'에게로.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는 '루이'에게 죽임을 당하는 '고스트 독'의 손에서 '루이'에게로. 그리고 '루이'에게서 마피아 두목의 딸에게로. 결국 <라쇼몽>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별 다른 명분도 없이 죽고 죽이는 무의미한 살인에 의해서만 관계가 설정되는 인물들, 이를테면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앵그리 영맨'인 마피아 두목의 딸과 <툼과 제리>나 <딱다구리> 같은 흑백만화를 보며 시간을 죽이는 한물간 이탈리아계 마피아, 그리고 뒷골목을 전전하는 흑인. 이처럼 다양한 미국시민들을 한데 묶어주는 것은 성조기도 아니고 미식축구도 아니라 20세기 초의 일본 소설이다. 짐 자무쉬의 개인적인 일본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더라도 어딘가 생경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사무라이 검을 휘두르는 '고스트 독'의 몸짓이 래퍼의 댄스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그러나 이런 분방한 상상력이 모두 허용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닌던가.●